

# 대학원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바꿔보고 싶은 선택 4가지

글 • POSTECH 화학공학과 석·박 통합과정 김진수  
지도교수 • 윤용주  
mail • jinsukim1102@postech.ac.kr  
소속 • 나노 표면 과학 연구실(NSSL Lab)



# FOUR CHOICE

**여는 글**

포항공대에 입학한지 어느덧 5년차가 되었다. 낯선 곳에서의 적응도 금새,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 주변을 되돌아보면, 연구실 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들은 대부분 포항을 떠났고, 어느 새 나도 연구실에서 고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이 가까워지고서야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여유를 내어 잠시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았다.

지나고 보면 열심히 했던 것들도 있었고, 사소하지만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보상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아쉬웠던 선택들도 있고, 후회가 남는 선택들도 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체득했던 지혜를 가지고 대학원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대학원의 적응과 연구 관련된 조언들은 이미 인터넷과 서적으로 수많이 돌아다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싶지 않다. 오히려 매우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나만의 경험에서 비롯된 **바뀌보고 싶은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1. Social Activities**

대학원 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 선·후배들과 보냈던 것 같다. 연구실 구성원이 적지 않은 숫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대학원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외적인 활동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되돌아 보면 대학원생 1~2년차 때에 연구실 사람들과 경주를 놀러 가서 벚꽃 마라톤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소모임 활동이었던 것 같다.

사회 활동은 내가 신입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동아리, 모임활동, 봉사, 혹은 종교 활동 등 무엇이 되었든, 대학원 생활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



< 벚꽃 마라톤 >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꼈지만, 이런 활동이 오히려 학위 과정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대학원 생활의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조용한 지방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이러한 전환적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환이라는 것이 꼭 기분의 전환만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활동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특히 비대면 시대가 된 지금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졸업까지 이제 반 학기 ~ 한 학기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핑계가 아닐까? 거창한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고 하나 둘씩 해보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Photographic Recording**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나의 습관은 현재 나의 발자국을 꾸준히 남길 수 있게 도와주었다. 대학원을 오기 전, 학부시절과 고등학생 때부터 스케줄러를 쓰면서 내 일과를 관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탓인지 지금도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기록하고, 나의 자취를 남겨놓는 편이다. 그 안에서는 연구와 업무 일기뿐만 아니라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한 기록, 독후감, 대학원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낀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인터넷 blog 활동도 벌써 3년 정도가 지났고, 어느 새 이백여 개 이상의 글이 모여있게 되었다.



< 교내 가로수길 >



< 식물 일기 >

비교적 대학원 생활들이 글로는 잘 기록되어있었지만,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런 대학원 생활들의 자취가 사진으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기록과 데이터들은 꾸준히 백업을 해주었지만 나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달려온 학위 과정과 인생의 일부분을 맞바꾸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photographic recording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코로나가 퍼진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이런 힘든 시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반추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과거를 추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 Meditation and Mental Care

학위 기간을 절반 조금 넘긴 시점에서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다. 그때는 무엇을 해도 항상 머리가 아프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조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개인의 감정도 귀를 기울여보고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감정을 관찰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명상과 정신건강 관리의 신입생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하려고 현재 진행형인 노력이다. 빠르면 4~5년에서 길면 6~7년까지 길게 지속하는 한 곳에서의 연구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 관리였다고 생각한다. 학위 과정은 성과위주 식으로 모든 일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지 않으면, 쉽게 피폐해질 수 있다.

연구실 생활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나에게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켜볼 여유를 많이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어나자마자 기계적으로 출근하는 삶이 아닌, 1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고 출발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내일을 또 다짐하는 삶이었다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 Finishing Research

네 번째 주제로 연구에 대한 마무리를 꼽았다. 특히 연차가 낮았을 때는 연구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서 지나고 보면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당시에 나의 생각은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결과도 썩 만족스럽지 못 하니 다음 기회에서는 더 완성도를 높여봐야지” 였던 것 같다. 그러나, 연차가 많이 쌓이고 나서는 부족함대로 거기에 맞는 끝맺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항상 내 연구 실력보다 내가 보는 눈높이의 수준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발전에는 이러한 경험이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소한 성취와 동기부여를 통해 마라톤 같은 학위 레이스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생각 해보니, 내 욕심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연구실이 지향하는 목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 싶었다. 연구 철학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주관적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마련이다. 큰 욕심은 내려놓고 마무리를 더 확실히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 마치는 글

“Life is a matter of priority”라는 말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선택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대학원에 진학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닐까? 대학원 진학을 통해 더 깊은 학업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감이 되었으면 한다.



< 코로나전 포항 불꽃 축제 >